

뉴스레터 44 호

진실의 힘

TRUTHFOUNDATION



칼럼

감사합니다!

김재명 국가폭력피해자

| 지난 1 월 21 일, 서울지방법원은 김재명, 김시우, 배영수 선생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975 년 4 월 1 일 중앙정보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른바 "재일교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재판의 결과입니다. 건국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선후배들인 선생들은 일본에서 유학을 온 김달남과 함께 대학을 다닌 인연뿐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약 한 달 동안 불법 구금과 고문 수사를 통해 "김달남에게 포섭된 간첩"이라고 발표했고, 검찰과 법원은 중정의 발표 그대로 판결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주범 김달남은 체포된 지 2 년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았지만, 김재명 선생은 10 년, 김시우 선생은 5 년 형기를 다 채우고야 풀려났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47 년이 흘렀습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김재명 선생님의 소감을 씁니다.

[▶자세히 보기](#)

칼럼

진실이 또 다른 진실에 귀기울입니다.

송소연 진실의 힘 이사



| 송소연 이사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 년 12 월부터 2021 년 11 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2022 년 첫날부터 진실의 힘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소연 이사가 설립자 선생님들과 회원님들께 복귀 인사를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추모

인권 변론의 큰 별 지다

- 고 홍성우 변호사를 추모하며 -



| 지난 3월 16일,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변호사가 별세했습니다.

故 홍성우 변호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치사 사건 등 군사독재시절 고문과 조작으로 고통받았던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김근태 전민련 의장이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접견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구치소를 찾아가 13번째만에 피고인을 만났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인권변론의 상징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문과 조작으로 심신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잃어버린 말을 찾아줬습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30년동안 인권변론의 한길을 걸어온 홍성우 변호사에게 지난 2013년 제3회 인권상을 드렸습니다. 당시 수상 소감을 통해 고 홍성우 변호사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세히 보기](#)

이슈

문명 사회에 제동거는 비문명적 지하철 타기

하민지 비마이너 기자



| 아침 출근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아니, 회사 동료 중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장애인이 있으신가요?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진 지금,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립니다.

장애·빈곤 전문지 <비마이너>의 하민지 기자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후원회원

2022년 5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1년 후원하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진실의 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truth@truthfoundation.or.kr

T. 02) 741.6260

[▶자세히 보기](#)

후원회원님의 응원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진실의 힘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행 에세이

아름다운 고군산도의 섬처럼

최영아 진실의 힘 이사



| 군산 앞바다의 작은 섬, 개야도. 누구나 개간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 풍요로운 섬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간첩으로 내몬 '개야도 조작간첩 사건' 이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의 설립자 중 한 분인 임봉택 이사님은 이 곳에서 나고 자랐고, 이곳에서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모진 일을 당하고도 고향 개야도를 지키고 있는 임봉택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진실의 힘의 원년 멤버들이 뭉쳤습니다. [▶자세히 보기](#)

감사인사

진실의 힘 후원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알립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사무국을 꾸려온

이사랑 팀장이 7년 5개월의 업무를 마치고

진실의 힘을 떠났습니다.

젊음과 열정 다한 그 시간, 한결같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truth@truthfoundation.or.kr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 19 길 16 성공회빌딩 302 호

02-741-6260

[수신거부](#) [Unsubscribe](#)